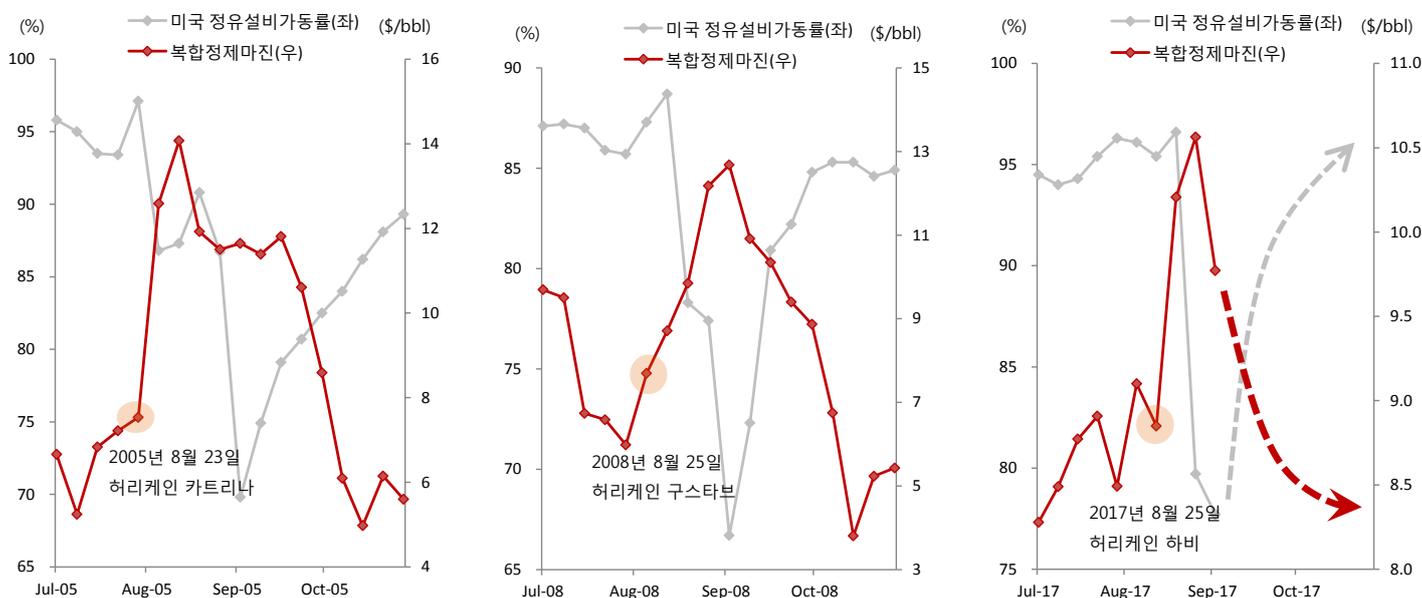


## 언제 허리케인이 시황의 대세를 바꾼 적이 있었던가

- ▶ 과거 대규모 태풍인 05년 카트리나, 08년 구스타브 때 역시 지금 하비와 같은 정제마진 급등 발생
- ▶ 하지만 단기 이슈인 만큼 1개월 남짓 호조로 마무리 되었음. 주가의 추가 모멘텀 기대는 무리

2005년 카트리나, 2008년 구스타브와 2017년 하비 때의 미국정유설비 가동률 및 정제마진 비교



자료 : EIA, Petronet, SK증권

- 허리케인 하비(Harvey)가 지난 한 달 여 간 국내 정유업황에 대단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
- 근거는 단순했습니다. 하비로 인해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이 80% 이하까지 급락을 하고, 이 때문에 석유제품의 shortage 가능성이 대두되며 정제마진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. 실제 복합정제마진은 2010년 이래 최대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
- 그렇지만 태풍효과가 진정된 다음에도 이런 랠리가 가능할까요? 사실 fundamental 이슈는 아닌데 말이죠
- 그래서 과거 미국 대규모 태풍 때 상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. 2005년 카트리나와 2008년 구스타브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겠죠. 그 때도 지금까지처럼 태풍이 들이닥치고 약 한 달 여 간은 정제마진 초강세가 이어졌는데요. 중요한 건 직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가동률과 정제마진 모두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
- 태풍에 익숙한 미국이기 때문인지 하비로 인한 피해도 별로 크지 않게 보도됩니다. 대다수 정상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네요
- 그렇다면 정제마진 강세와 3분기 호실적 가능성을 주가에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? 혹시 이미 반영된 건 아닐까요?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 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